우선 저희 아버님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시지만 이 슬픔을 저희와 함께 나누기 위해 이렇게 시간 내어주신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짧게 간증 시간을 목사님께서 주신다고 하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끝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몸소 실천하시어서 보여주셨고 남겨주신 아버지의 삶을 마지막까지 준비하신 그 시간들을 나누려고 준비하였습니다.

|  |
| --- |
| (마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

|  |  |
| --- | --- |
| (마 26:42) |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

|  |  |
| --- | --- |
| (마 26:43) |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게으른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2년전 70세를 맞이하여 함께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갔었습니다. 운전을 하며 아버지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께서는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않을것이다. 효도라는 것은 살아 생전 하는것인데 부모는 너희가 효도할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고 말슴하셨습니다. 그리고 효도는 돈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는 저를 기다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나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린것이 없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것을 남겨주신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 해 두셨던 많은 것들을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아버지께서는 성실한 모습으로 성경의 구약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하신 성경이었습니다. 목적은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란 말을 말로만 들었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남겨주신 성경을 보니 정말 제 신앙이 부끄럽기만 하였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손으로 쓰신 성경을 보고 정말 입을 다물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번도 제대로 읽기 힘들었던 성경을 아버지께서는 한글자 한글자 마음에 새겨 가시면서 쓰셨던 그 모습에 정말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성경을꼭 읽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으래 말하는 유언장은 누구에게는 무었을 주고 누구에게 하고싶은 마음등을 적은것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성실함을 보여주시며 적당히 쓴것이 아닌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시며 쓰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제자훈련때 쓰셨던 유언장을 보시고 기억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머니도 잘 몰랐고 저희도 본적이 없는 유언장을 장례 예배에 공개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준비하심에 놀랐습니다. 제나이 14살때에 미국에 저희 형제를 미국에 보내시고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없었던 저에게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성실함과 자상하심을 유언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에게만 남긴 유언이 아닌 목사님들과 또한 함께 오래도록 교회생활을 하셨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까지 인사로 남긴 유언장을 보면서 다시한번 찰렌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무시지 않으시며 기도로 준비하신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앞으로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검소하시면서도 품위있게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에 감격하였습니다. 장례가 끝이나고 집에와서 아버지의 물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이라고는 집안을 위해서 치과의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수필가가 되고 싶었다고 항상 말씀하신 책들과 작은 방에 있는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그안에는 양복 몇벌과 가끔 아버지를 만나면 입고 다니셨던 잠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새옷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현관에는 신고다니셨던 구두 한켤레와 단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아버지께서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실수 있도록 많은 짐을 남기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복잡한 삶을 사시지도 않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때에 입고 계셨던 옷 한벌을 병정들이 제비 뽑았을때가 생각이 났고 주님께서는 이세상에 많은 유물들을 남기기 위해 오시지 않았으면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기에 남긴것이 결코 많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무엇을 남기고 갈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위해 많은것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훈을 몸소 실천하여 저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모습을 100분의 1만이라도 닮고 또한 나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것이 무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유정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이시간을 빌어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